

조선시대 의장(儀仗) 은우(銀盃)에 관한 문헌사적 고찰

김지현*

1. 머리말
2. 은우의 쓰임
3. 은우의 제작과 장인
4. 반차도로 본 은우와 은관자의 혼용
5. 맺음말

1. 머리말

의장은 왕실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물품,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의장 행렬 시 은우는 중앙에 배치되어 대열 상 돋보이는 의물이었다. 특히 은우는 좌우에 배치된 기(旗)와 같은 평면적인 의물(儀物)과는 달리 입체적인 의물로 의장의 기능을 더했다. 때문에 의장의 행렬을 기록한 반차도에서는 은우가 중앙에 그려져 단연 눈에 띈다. 반차도에서 은우와 함께 등장하는 은관자(銀灌子)는 앞 혹은 뒤에 배치되어 의장으로서 기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을 서로 바꿔 기록하거나 형태를 전혀 다르게 묘사한 반차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반차도의 묘사된 의물을 살펴보던 중 은우와 함께 등장하는 은관자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의장에 관하여 개괄적인 연구와 반차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 석사졸업.

으나 의복 한 종에 대해 반차도와 함께 심층적으로 연구된 바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우를 중심으로 의장의 기능과 제작 및 장인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반차도에 기록된 명칭과 형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 은우의 쓰임인 의장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초의 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를 통해 특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은우의 제작과 장인에 대해 파악한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시 도감을 설치하고 장인들을 각 방에 배속시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였고 과정들을 의궤에 기록하였다. 의궤에는 은우를 제작 시 소용된 재료와 장인들이 기록되어있다. 의궤의 기록을 통하여 은우의 제작과정과 장인들을 유추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은우와 함께 등장하는 은관자에 대해 살펴본 후 반차도에 묘사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명칭이 뒤바뀌거나 형태가 혼용된 의궤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고찰 과정은 은우와 은관자의 전례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와 중국의 의례서를 살펴본다. 또한 반차도를 그리는 제도를 파악하여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나 그림의 형태가 다르게 묘사된 이유에 대해 밝힌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의 은우와 은관자가 쓰이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규장각 소장 의궤의 반차도를 중심으로 파악한 점을 미리 밝힌다.

2. 은우의 쓰임

의장은 왕실의 행사나 의례 등 행차 시 위엄을 보이기 위해 편성한 물품 및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른 말로 노부(鹵簿)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의장제도가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그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의장은 세종 대 정비하기 시작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통해 정립되었다. 의장은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장에 사용되는 물품들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화려하였다. 특히나 은우는 은관자와 함께 의장 중 행렬도에서 가운데 위치하여 눈에 띄는 의장 중 하나이다. 조선 초기 국가의례를 집대성한 『세종실록』 「오례」

가례서례에는 은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에는 “은으로써 만들고, 물을 길는 기물이다.”라고¹⁾ 설명하고 있다. 재료는 은을 사용하였으며, 물을 길는 기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1인은 교의(交椅)를 받들고, 1인은 각답을 잡는데, 자주색 옷[紫衣]에 자주색 두건[紫巾]을 착용한다. 우(盃)와 관자(灌子)를 잡은 사람도 이와 같다. (중략) 백호당·현무당이 각각 1개씩 오른쪽에 있고, 은우·은관자가 각각 1개씩 중앙에 있다.

위 기록은 가장 큰 규모인 대가(大駕)와 한 단계 낮은 법가(法駕)의 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은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주색 옷과 자주색 두건을 착용하였다. 은우의 위치는 중앙에 있으며 백호당과 현무당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중궁의 노부에서도 은우가 등장하며, 은우를 자주색 옷과 자주색 두건을 착용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같다. 왕과는 달리 중궁의 노부는 은우를 중심으로 은등(銀燈)과 금등(金燈)이 좌우로 2개씩으로 배치되어 있다. 1749년(영조 25)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을 기록한 『국혼정례(國婚定例)』 「왕비가례조」에는 연여의장에 은우 1건이 기록되어 있다. 은우는 왕비의 의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실록』 「오례」의 기록에서 대가는 조칙(詔勅)을 맞이할 때와 사직제, 종묘제에 사용되었으며, 법가는 선농제(先農祭), 대사례(大射禮), 문무과전시(文武科殿試), 문소전·문선왕묘의 제향 때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대가, 법가의 설명을 통해 길례(吉禮)를 비롯하여 군례(軍禮)에 해당되는 의례에도 은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 「오례」의 흉례(凶禮) 발인반차에 대한 대목에서도 은우가 기록되었으며 내용은 대가, 법가의 노부 기록과 같다. 정조 3년 『일성록(日省錄)』에는 발인, 반우 시 의장에 관하여 절목을 마련하기 위해 좌의정이 아뢰는 대목에서 은우가 언급되고 있다.²⁾ 이러한 제도는 조선후기 전쟁으로 인하여 잘 지켜지지 못했으나 선대의 예법을 정비하여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1) 『世宗實錄』 권132, 「五禮」嘉禮序例 鹵簿 “制以銀, 汲水器.”

2) 『日省錄』 정조 3년 6월 3일 乙卯.

은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왕과 왕비의 의장이었다는 점이다. 『세종실록』 「오례」에서 왕과 왕비의 의장임을 명시했으나 왕세자나 왕세자빈의 의장에서는 은우가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후기의 『국혼정례』에서도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연여 의장에는 은우가 기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세자의 장례인 예장의 발인반차도에 은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은우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왕과 왕비의 의장으로 왕실의 위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왕의 의장의 경우 은우 오른쪽에는 백호당과 현무당이 있으나 왕비의 의장에서는 은우 좌우에 은등과 금등이 위치해 있다. 이는 왕의 의장의 개수가 왕비에 비하여 많고, 의장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은우를 든 사람은 자주색 옷과 자주색 두건을 입는다는 것이다. 『세종실록』 9년에는 자색을 금하라는 명을 내린 기록은 당대의 색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지금 위로는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천례(賤隸)에 이르기까지 자색(紫色)을 입기를 좋아하니, 이로 인하여 자색의 값이 한 필 염색하는 데 값이 또 한 필이나 듭니다. (중략) 지금부터는 그 자색의 염료는 진상(進上)하는 의대(衣衛)와 대궐 안에서 소용되는 외에는 일체 엄격히 금하고 (후략)³⁾

조선시대에 계급을 불문하고 자색을 선호하였던 당대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색 한 필을 염색하는데 또 한필이 든다는 것으로 보아 그 값이 매우 고가였다. 때문에 왕실에서 소용되는 자색 이 외에는 모두 금하라는 명이 내려지게 된다. 의례라는 성격과 격식을 갖춘 의장을 든 사람의 복식의 색은 다양하였다. 특히 자색은 당대 금지의 색임에도 은우를 든 사람의 복식 색을 자색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전례를 지키고, 의장으로써 위엄을 보이기 위해 허용된 색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은우는 매 행사 때마다 새로이 만들지 않았다. 『정조국장도감의궤』의 품목질에는 ‘의장고(儀仗庫)에서 올린 것 중에 사용하던 의장 가운데서 색깔

3) 『世宗實錄』 권35, 9년 2월 19일 丁丑 “今上自卿大夫, 下至賤隸, 好著紫色, 因此紫色之價, 一匹所染, 又直一匹 (중략) 自今其紫染, 則進上衣衛及闕內所用外, 一皆痛禁”

이 변하지 않은 것을 간간이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길의장은 의장고에 있는 것으로 쓰던 의장을 가져와 살펴보니, 거의 다 색이 변하고 낡았으니 보수하고 광택을 내고 개비하는 종류를 구별⁴⁾ 하도록 감결을 요하는 기록이 있다. 은우는 길의장에 속했으며 기록에는 ‘은우자를 보수하라’는 주가 있어 은우는 매번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수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3. 은우의 제작과 장인

국가의 의례가 있을 시 도감을 설치하고, 각 방에서 의례에 필요한 의물들을 제작하였다. 그 중 이방(二房)에서 길의장, 흥의장, 복완, 명기 등을 관장하였다. 은우는 길의장 품목에 속하여 의궤에 기록되었다. 의궤는 후대에 실수를 방지하고 예법의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날짜에 따라 전교한 내용, 업무의 분담, 동원된 인원, 장인들의 명단, 소요 물품 등 매우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의궤에는 은우 제작 시 필요한 재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세종실록』 「오례」를 통해 은우는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은우라는 이름에서도 은(銀)자를 통하여 은빛이 나는 기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의궤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은우 제작 시 소용되는 재료에는 은이 기록되지 않았다. 의궤에 기록된 은우에 소용된 재료들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주된 재료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동철(銅鐵)과 유랍(鑰鐵), 랫철(鑞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자는 금속의 접미사로 쓰이는 한자이다. 동철은 구리를 의미하며 유랍·랫철은 전통사회에서 주석을 부르는 명칭이다.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국역 정조국장도감의궤』, 민속원, 208면.

〈표 1〉 의궤에 기록된 은우소용재료

연도	의궤	은우 소용 재료	청구기호 (규장각)
1608	『선조국장도감의궤 (宣祖國葬都監二房儀軌)』	銅鐵三斤一兩, 鐵鐵二兩一錢, 付鐵眞末一升	〈奎14861의2〉
1650	『인조국장도감의궤 (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銅鐵五斤一兩, 鐵鐵二兩一錢, 眞末一升	〈奎13521〉
1651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莊烈王后尊崇都監儀軌)』	銅鐵五斤一兩, 鐵鐵四兩, 眞末一升, 魚膠五錢	〈奎13252〉
1681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熟銅鐵一斤十兩, 鑰鐵四兩, 魚膠一兩 砒礪三錢 眞末三合	〈奎13084〉
1694	『인현왕후책례도감의궤 (仁顯王后冊禮都監儀軌)』	熟銅鐵一斤十兩, 鑰鐵四兩, 魚膠一兩 砒礪三錢 眞末三合	〈奎13086〉
1759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熟銅鐵一斤十兩, 鑰鐵四兩, 魚膠一兩 眞末三合	〈奎13102〉
1835	『순조국장도감의궤 (純祖國葬都監儀軌)』	本次楸木一尺, 熟銅一斤六兩, 含錫二兩五錢, 鑰鐵五兩, 砒礪三錢, 汗音黃銀五分	〈奎13669〉

은우는 구리로 기형을 만들고 그 위에 주석으로 도금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석은 은빛을 띠고 있어 백색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흰 백자에 주석 석자가 합쳐진 백석이라고도 불렀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는 유랍을 은이라 속인 일로 처벌 받는 내용이 실려 있다.⁵⁾ 『인조국장도감의궤』에서는 구리가 5근 10냥, 주석이 2냥 1전이 필요했다. 이는 구리가 주석의 45배가 많은 양으로 상대적으로 주석이 매우 적은 양이었다. 이와 같은 비율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할 시 주석의 비율이 미미하여 구리의 붉은 빛이 난다. 이러한 금속 비율을 보면, 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도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또한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숙종국장도감의궤』, 『정조국장도감의궤』 등 은우를 개수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구리가 등장하지 않고 랫철, 유랍이 2냥~4냥이 기록되어 있다. 『숙종부묘도감의궤』에서 은우 개수 기록에는 “取色所入”이라고 하며 랫철이 2냥이 들었다. 주석을 색을 입히는 데

5) 김지현, 2018 「조선시대 유기(鑰器) 제작기술과 유기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장렬왕후인선왕후존숭도감의례』에서는 은우를 개수하는 기록에 “剝落處改付鑢”라고 하였다. 이는 ‘박락된 곳에 주석을 붙여 고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구리로 만든 기물의 표현에 은색을 내기 위하여 주석 도금을 하였고, 개수할 때에는 도금이 떨어져 나간 곳만 새로이 도금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은우를 만든 장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은우를 제작했던 이방에 속한 장인의 명칭을 보고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장(銅匠)은 구리그릇을 만드는 장인으로 이방에 속하여 은우의 소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우의 소지에 주석으로 도금을 하였을 장인으로는 부랍장(付鑢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인의 명칭은 다루는 재료나 공정과정, 완성된 공예품이 명칭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부랍장은 장인의 명칭에서 한자를 풀이해보면 주석을 붙인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도금을 하는 방법은 주로 금속을 판으로 만들어 옷이나 아교를 접착제 삼아 붙이거나 수은을 이용하여 도금하였다. 중국의 기술서인 『천공개물(天工開物)』에는 금박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무릇 금박을 만들 때는 이미 박편을 만들어 놓은 다음 다시 오금지로 싸서 쇠망치로 온힘을 다하여 쳐서 펼친다. (중략) 오금지로 싸고 쳐서 금박을 만든 후에는 먼저 초석으로 무두질한 고양이 가죽을 작은 네모난 판자에 팽팽하게 펼쳐 준비한다. 그리고 다시 향불의 재를 그 가죽에 뿌리고, 오금지 안에 썼던 금박을 꺼내어 그 위에 올리고 무딘 칼로 가로세로 한 치가 되도록 네모로 금을 긋는다. 숨을 멈추고 손으로는 가벼운 나무 막대를 잡고 이를 침으로 축여 잡은 다음 들어 올려 작은 종잇조각 사이에 끼운다. 이로써 물건을 화려하게 장식할 때는 먼저 잘 숙성시킨 옷으로 바탕을 칠한 연후에 붙인다.⁶⁾

이규경의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에서도 천공개물의 금박 만드는 내용을 인용하며, “은, 주석, 구리의 박을 만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⁷⁾ 서술하였다. 다수의 의궤에 기록된 부랍장의 소용도구에서 주석박(朱錫箔)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이 다수 보인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

6) 송응성(임동석 옮김), 2015 『천공개물 2』, 동서문화사, 732-73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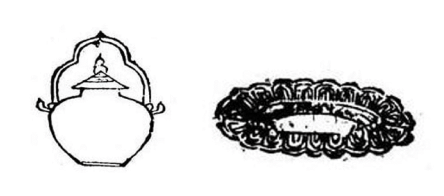
7) 이규경(최주 옮김), 2008 『오주서종박물고변』, 학연문화사, 27면.

요 도구 및 재료에는 방형망치[方了赤], 모루[毛老], 전도(剪刀), 박달나무막대 [朴槿木片], 어교(魚膠), 아교가루[膠末] 등이 있다. 망치와 모루는 주석을 얇게 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망치는 주석을 두드리고, 모루는 받쳐주는 대(臺) 역할을 한다. 전도는 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석박을 자를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박달나무막대는 원경 2치에 길이가 1자 5치로 자세한 치수가 기록되어 있다. 원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둥근 막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석박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교와 아교가루는 주석박을 은우 소지에 붙이기 위한 접착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장과 부랍장은 이방에 속하여 협업을 통해 은우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4. 반차도로 본 은우와 은관자의 혼용

은관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실록』 「오례」에 대가의 노부, 법가의 노부, 중궁의 노부, 발인 반차의식에서 은우와 함께 서술되고 있다. 은관자 도설에는 은으로써 만드는데, 은반과 같으면서도 속이 깊다고⁸⁾ 기록되었다. 『세종실록』 「오례」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오례와 관한 통일된 의식의 규범이 『국조오례의』를 통해 정립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에서 등장하는 의장인 은우와 은관자는 『국조오례의』에서도 그대로 도설과 함께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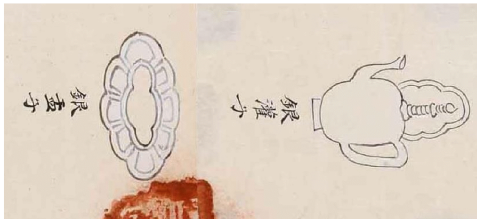
〈표 2〉 조선전기 의례서에 기록된 은우와 은관자

	
『세종실록』 「오례」 은우(좌), 은관자(우)	『국조오례의』 은우(좌), 은관자(우)

8) 『世宗實錄』 권132, 「五禮」 嘉禮序例 鹵簿 “制以銀如銀盤而深”

의례서에 기록된 의물들은 의궤 속 반차도에 그려졌다. 의궤는 당대의 의례준비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기록물이다. 의례에 사용되는 기명, 복식, 의장물을 도식으로 나타냈으며, 그 행렬을 그린 반차도가 수록되어있다. 특기할 것은 보통 글로써 작성되는 문서들에 반하여 반차도라는 도식화된 이미지를 덧붙여 글로 설명하기에 타당치 않은 것들의 표현까지도 가능해졌다. 이점이 여타의 도서들과 비교했을 때 의궤의 도설과 반차도가 글과 더불어 시각자료로써 이해와 가치를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⁹⁾ 반차도를 그린 의궤는 가례, 국장(천릉), 왕세자 책례, 존숭(존호), 부모도감의궤, 영정모사도감의궤, 종묘(영녕전)개수도감의궤 등이다.¹⁰⁾

반차도에는 의물 중 하나인 은우와 은관자가 항상 함께 등장한다. 은우는 한자의 접미사인 '子'를 붙여 은우자라고도 기록하였다. 규장각 소장 의궤 중 반차도에 등장하는 은우와 은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궤 중 은우와 은관자가 기록된 반차도는 가례도감의궤 8종, 국장도감의궤 24종, 천릉도감의궤 2종, 부모



〈그림 1〉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 (1752)
반차도 은우·은관자 부분, 청구기호 <奎 13292>

도감의궤 25종, 영정모사도감의궤 3종, 종묘도감의궤 2종이 확인되었다.

은우와 은관자는 왕과 왕비의 의장임으로 왕세자, 왕세자빈의 책례도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존숭도감의궤나 존호도감의궤는 사람이 포함된 행렬이 그려진 반차도에는 은우와 은관자를 찾기 어렵고, 의물만 그려진 반차도에서는 『인원왕후

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에서 의물의 명칭이 기록되어 확인 가능하였다. 반차도를 살펴보면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반차도에 기록된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 바뀌어 있거나 의례서의 기본 형태를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먼저 가례도감의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이미연, 2014 「화성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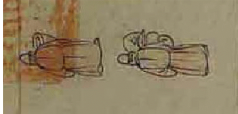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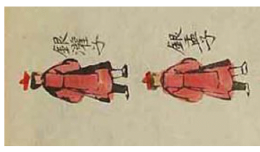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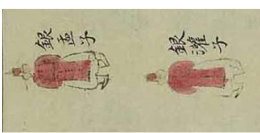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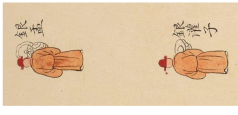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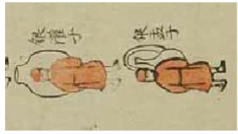

10) 김지영, 2005 「조선후기 의궤(儀軌) 반차도(班次圖)의 기초적 연구」 『韓國學報』 31, 5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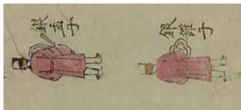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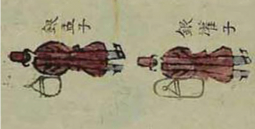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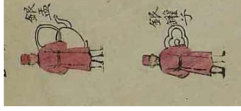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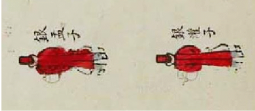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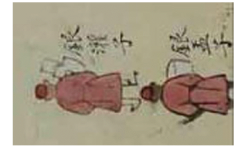

〈표 3〉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1681	『숙종인현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084〉		1837	『헌종효현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139〉	
1702	『숙종인원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089〉		1845	『헌종효정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143〉	
1759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102〉		1852	『철종철인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147〉	
1802	『순조순원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122〉		1866	『고종명성왕후 가례도감의궤』 〈奎 13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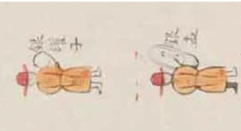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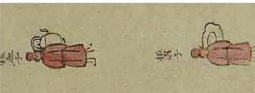
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서 확인한 은우와 은관자를 혼동하여 묘사한 의궤는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볼 수 있다. 은우는 납작한 은반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은관자가 주구(注口)가 있는 주전자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한편 은관자에 주구를 그려 넣고, 은우는 바리의 형태로 묘사한 의궤는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고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이다. 은관자와 은우를 구분하지 않고 바리의 형태로 기록한 의궤는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가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는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구분하기 어렵다.

〈표 4〉 국장도감의궤 반차도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1650	『인조국장 도감의궤』 〈奎 13521〉		1800	『정조국장 도감의궤』 〈奎 13634〉	
1659	『효종국장 도감의궤』 〈奎 13527〉		1805	『정순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592〉	
1674	『인선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4865〉		1821	『효의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649〉	
1675	『현종국장 도감의궤』 〈奎 13539〉		1835	『순조국장 도감의궤』 〈奎 13669〉	
1681	『인경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553〉		1843	『효현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802〉	
1689	『장렬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4867〉		1849	『헌종국장 도감의궤』 〈奎 13784〉	
1702	『인현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555〉		1857	『순원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686〉	
1725	『경종국장 도감의궤』 〈奎 13566〉		1865	『철종국장 도감의궤』 〈奎 13844〉	

1731	『선의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576〉		1880	『철인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860〉	
1757	『인원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557〉		1892	『신정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736〉	
1757	『정성왕후국 장도감의궤』 〈奎 13589〉		1898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奎 13883〉	
1776	『영조국장 도감의궤』 〈奎 13581〉		1905	『효정왕후 국장도감의궤』 〈奎 13816〉	

〈표 5〉 천릉도감의궤 반차도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1674	『효종영릉천 릉도감의궤』 〈奎 13532〉		1732	『인조장릉천 릉도감의궤』 〈奎 14597〉	

국장도감의궤에서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 바르게 기록된 의궤의 반차도는 『효종국장도감의궤』,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등 7종이다. 천릉도감의궤 2종에서도 비교적 명칭이 올바르게 기록되었다. 다만, 형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조국장도감의궤』와 형태를 그리지 않고 명칭만 기록한 『정조국장도감의궤』, 『정순왕후국장도감의궤』,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명칭을 기록하지 않고 형태만 기록한 『인조국장도감의궤』 등 5

종은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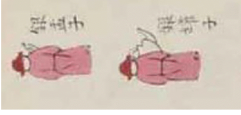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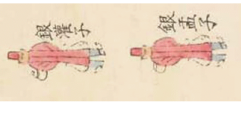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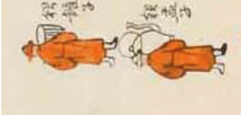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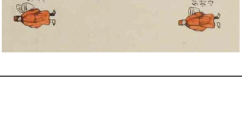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 바뀐 의궤는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가 있다. 형태가 혼용된 의궤로는 『현종국장도감의궤』, 『경종국장도감의궤』가 확인된다. 『현종국장도감의궤』의 반차도에서는 은우는 도식에 맞게 표현되었으나 은관자가 물동이 형태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은반의 형태와 거리가 멀다. 또한 『경종국장도감의궤』의 반차도에서도 은관자가 목이 좁은 물동이의 형태로 묘사되었다.

『순조국장도감의궤』,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현종국장도감의궤』, 『순원왕후국장도감의궤』, 『철종국장도감의궤』,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신정왕후국장도감의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의 반차도의 은우와 은관자는 모두 바리의 형태로 그려졌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은관자에 손잡이를 묘사하여 들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나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에서는 은관자에 주구를 그려 주전자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은관자를 은우의 형태와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 11종의 국장도감의궤에서 형태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묘도감의궤에서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 바르게 기록된 반차도는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장렬왕후부묘도감의궤』,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부묘도감의궤』, 『인원왕후부묘도감의궤』, 『정조부묘도감의궤』,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등이 6종이다. 한편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이 바뀐 반차도는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영조정성왕후진종효순왕후부묘도감의궤』, 『정순왕후부묘도감의궤』 등 5종이다. 은우와 은관자의 형태를 다르게 표현한 의궤가 다수 보인다.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의 경우에는 은우는 사발의 형태, 은관자를 바리의 형태로 묘사하였다. 『인조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와 『효종부묘도감의궤』에서는 은우와 은관자의 몸체는 원형으로 같으며 은관자에 주구와 손잡이를 달아 주전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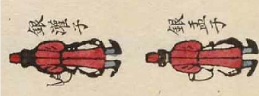
〈표 6〉 부모도감의궤 반차도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연도	의궤명 〈청구기호〉	도판
1615	『공성왕후부묘 도감의궤』		1759	『인원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561〉	
1651	『인조인열왕후 부묘도감의궤』 〈奎 13524〉		1778	『영조정성왕후 신종효순왕후부 묘도감의궤』 〈奎 13587〉	
1661	『효종부묘 도감의궤』 〈奎 13530〉		1802	『정조부묘 도감의궤』 〈奎 13643〉	
1670	『신덕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496〉		1807	『정순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598〉	
1676	『인선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536〉		1823	『효의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654〉	
1677	『현종부묘 도감의궤』 〈奎 13541〉		1837	『순조익종부묘 도감의궤』 〈奎 25039〉	
1686	『명성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545〉		1851	『헌종효현왕후 부묘도감의궤』 〈奎 13796〉	
1691	『장렬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525〉		1859	『순원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703〉	




1699	『단종정순왕후 복위부묘 도감의궤』 〈奎 13503〉		1866	『철종부묘 도감의궤』 〈奎 13854〉	
1722	『숙종인경왕후 인현왕후부묘도 감의궤』 〈奎 13551〉		1881	『철인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874〉	
1726	『경종단의왕후 부묘도감의궤』 〈奎 13571〉		1893	『신정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754〉	
1732	『선의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579〉		1906	『효정왕후부묘 도감의궤』 〈奎 13835〉	
1739	『단경왕후복위 부묘도감의궤』 〈奎 13506〉				

반대로 『현종부묘도감의궤』에서는 몸통부분이 긴 물동이의 형태를 하고 줄무늬가 새겨져 있으나 은우에 주구와 손잡이를 달아 구분하기도 하였다. 『경종단의왕후부묘도감의궤』, 『선의왕후부묘도감의궤』,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등 3종은 은관자가 은반의 형태처럼 납작하게 묘사되기보다 물동이의 형태처럼 깊고 오목한 형태에 가깝다. 『순조익종부묘도감의궤』, 『헌종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철종부묘도감의궤』,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 『효정왕후부묘도감의궤』 등 7종에서는 은우와 은관자의 몸체가 바리와 같이 묘사되고 있어 기존의례서의 형태대로 구분이 어렵다. 단지 『순원왕후부묘도감의궤』, 『철인왕후부묘도감의궤』, 『신정왕후부묘도감의궤』에서는 은관자에 주구를 묘사하여 주전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표 7〉 종묘의례 반차도

연도	의례명 〈청구기호〉	도판	연도	의례명 〈청구기호〉	도판
1726	『종묘개수도감의례』 〈奎 14225〉		1836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례』 〈奎 14226〉	

〈표 8〉 영정모사도감의례

연도	의례명 〈청구기호〉	도판	연도	의례명 〈청구기호〉	도판
1838	『태조영정모사도감의례』 〈奎 13981〉		1901	『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현종영정모사도감의례』 〈奎 13990〉	
1900	『태조영정모사도감의례』 〈奎 13982〉				

종묘의례, 영정모사도감의례의 반차도에서도 은우와 은관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묘개수도감의례』와 『태조영정모사도감의례』(1838)에는 명칭이 기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한편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례』에서는 은관자를 주전자로, 은우를 사발의 형태로 묘사하였다. 『태조영정모사도감의례』(1900), 『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현종영정모사도감의례』에서는 은우와 은관자의 몸체가 둥근 바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은관자에만 손잡이를 달아 형태를 구분했다. 『태조영정모사도감의례』(1900)에서는 은관자에 주구로 보이는 것을 그려 넣어 주전자와 형태가 비슷하다.

〈표 9〉 의례 종류에 따른 은우·은관자 명칭 표기 및 형태 묘사

의례 종류 명칭 표기 및 형태 묘사	가례도감의례	국장도감의례 (천릉)	부묘도감의례	종묘/영정 모사도감의례	계
바른 표기	-	9	6	-	15
명칭 바뀜	2	1	5	-	8
형태 혼용	5	11	14	3	33
확인 불가	1	5	-	2	8
계	8	26	25	5	64

가례도감의례, 국장도감의례(천릉), 부묘도감의례, 종묘의례, 영정모사도감의례 등 64종을 살펴본 결과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을 바꾸어 기록한 의례가 8종, 형태가 혼용된 것이 33종으로 총 41종이 의례서의 도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차도에서 은우와 은관자의 형태가 확인 불가한 의례 8종을 전제로 포함 시키더라도 64%에 해당하는 의례에서 은우와 은관자를 혼동하고 있다. 특히나 은우와 은관자 형태를 의례서에 맞지 않게 그린 의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은우와 은관자의 혼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의장이 전례 된 기록과 한자의 뜻을 풀이하여 파악해볼 수 있다. 고려 인종 대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을 통해 예법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의종(毅宗) 대 의장을 규정하였다. 현재 『상정고금예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고려사』에서 예법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사』 72권 지(志) 권제26에는 「의위(儀衛)」조가 실려 있다. 의위는 장엄한 의식을 하기 위해 정렬된 의장물을 가진 호위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장과 같은 말이다. 「의위」조의 “법가의 위장”에는 ‘교상(絞床)과 수관자(水灌子)가 하나씩인데 좌우로 갈라 세우고 여기 따르는 군사가 4명, 금화모자와 비단 옷에 가은대를 띤다’고¹¹⁾ 기록되었다.

11) 『高麗史』 권72, 志26 「儀衛」 凡法駕衛仗 “絞床·水灌子各一, 分左右, 軍士四人(金畫冒子, 錦衣, 假銀帶)”

이 외에 상원(上元) 연등회 시 왕이 봉은사 진전에 행차 의장, 중동(仲冬) 팔관회에 간악전(看樂殿)에 나가는 왕의 의장, 서경과 남경을 순행하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의장, 고종(高宗) 대 의봉루에 올라 대사령을 선포하는 의장에서 교상과 수관자가 법가의 의장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의복이 조금씩 달랐다.¹²⁾ 한편 서경과 남경을 순행할 때의 위장에서는 교상과 수관자 하나씩을 길 복판에 세워 놓아 행렬의 위치가 달랐다. 「의위」조에서 조회 때의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장에서 교상과 수관자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가례」조에서 태후를 책봉하는 의식에 교상과 수관자가 의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부」조에서도 왕태자의 노부에 교상과 수관자가 등장한다.¹³⁾

고려시대 의장에서 교상과 수관자는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다. 도설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한자의 의미를 보면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교상은 노나 끈을 엮어 만든 걸상이다. 관자는 주로 주전자로 해석하여, 수관자는 물주전자로 번역이 가능하다. 즉, 교상은 받침대의 역할을 하는 대의 형태, 수관자는 몸체에 주구가 있으며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의 형태로 유추가 가능하다. 교상과 수관자는 조선시대의 의장인 은관자, 은우와 비슷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고려사』에 공양왕 2년(1390) 위위판사(衛尉判事) 이민도(李敏道)가 중국 제도를 본 따 새로운 의장을 만들었는데, 의장을 짚은 사람들은 모두 청홍색으로 물들인 베옷을 입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공양왕 대부터 수관자와 교상을 든 사람들은 홍색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의장을 반영한 『세종실록』 「오례」에서도 은우와 은관자를 든 사람은 자색을 입도록 하여, 같은 적색

12) 상원 연등회의 위장에서는 비단모자에 비단옷, 가은대를 띠며, 중동 팔관회의 의장에서는 입각모자, 보상화 수를 놓은 소매 넓은 옷에 가은대를 띠며, 서경·남경 순행시의 위장은 골타자대(骨朶子隊)의 군사의 것과 같다고 기록되었다. 골타자대의 의복은 중동 팔관회 의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각 모자에 자색 옷을 입고 칼을 차고 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경 남경의 영접시의 위장에서는 비단모자, 비단옷에 가은대를 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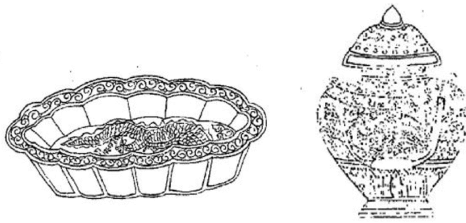
13) 교상과 수관자 각각 하나씩을 좌우로 갈라 놓는데 여기에 따르는 군사가 4명이며, 의복은 현각모자(玄角帽子), 보상화 수를 놓은 소매가 넓은 옷에 가은대를 띠다고 기록되어 있다.

14) 『高麗史』 권72 志 권 제26 「儀衛」 凡遇大禮大朝會 “恭讓王二年正月，衛尉判事李敏道，倣中國制製新儀仗，持仗人皆着青紅染布衣…”

계열의 의복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시대부터 기존의 의장제도에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비되고 있던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 「오례」는 『상정고금예문』뿐만 아니라 중국의 예전(禮典)들을 참고하였다. 명나라 태조 대 당시까지의 모든 예전을 집대성한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은우와 은관자의 도설과 매우 유사한 의장인 수분(水盆)과 수관(水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분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盆’ 한자는 주로 대야와 같이 높이가 낮고 넓은 형태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수관의 ‘罐’ 두레박 관자로 물을 길는 기능성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하다. 수분과 수관은 황제, 태후의 의장으로 사용되었고 금색이었다.



〈그림 2〉 『대명집례』 수분(水盆)-좌, 수관(水罐)-우

고려시대 의장에는 교상과 수관자가 존재했으며, 중국의 의장에서 수분과 수관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 초 의례서의 은우 도설은 고려의 수관자와 중국의 수관을 참고하여 은

관자로, 은관자 도설은 중국의 수분을 참고하여 은분(盆)으로 명칭을 기록하는 것이 전통을 이어가고 중국의 예법을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 조선의 예법에 따라 황제국에서는 금색, 제후국에서는 은색을 사용하여 의물의 명칭 앞에 은을 붙였다. 그러나 은우와 은관자의 도설은 명칭과 맞지 않게 붙여졌다. 특히나 은우라는 명칭은 도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盃’와 관련된 형태나 기능을 하는 의장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대명집례』에서는 바리의 형태로 묘사된 타우(唾盃)라는¹⁵⁾ 의장이 존재하였다. 타우는 황제와 태후의 의장으로 수분, 수관과 함께 기록되어있다. 고려의 의장을 이어받고 중국의 예서를 참고하여 조선의 의장으로 정립하는 도중 명칭 정의에 혼동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 조선시대에는 타우가 의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세종실록』 「오례」 흥례 서례에 명기로 타우를 기록하였다. 도설에는 나무로써 만들며, 뚜껑이 있고 검은 빛의 옷칠을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를 토대로 조선의 예법과 절차를 정리하게 되면서 『국조오례의』에 은우와 은관자의 도설이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차도에서는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을 뒤바꿔 기록하거나 형태를 전혀 다르게 묘사하였다. 이는 은우와 은관자의 한자 뜻과 도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은우는 ‘은 은(銀)’자에 ‘바리 우(盃)’자의 조합이다. 은관자는 ‘은 은(銀)’, ‘물댈 관(灌)’, ‘점미사 자(子)’를 쓰고 있다. 즉, 『세종실록』 「오례」에 명시되어 있는 은우의 쓰임은 ‘汲水器’로 물을 길는 용도이며, 이는 오히려 은우라는 이름보다는 물댈 관자를 사용하는 은관자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야 자연스럽다. 반면 은관자의 도식은 높이가 있는 은반 모양으로 은관자라는 한자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세종 대 은관자와 은우자의 명칭을 한자의 뜻과 도설이 상충되도록 의례서에 기록해놓으면서 화원들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의장을 받아 정립되는 조선초기에는 은우와 은관자의 명칭 혼동이 있었고, 반차도를 그린 화원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의례서를 참고하여 그린 반차도는 주전자 형태를 은우로, 속이 깊은 은반 형태를 은관자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반면 고려시대 의장의 전례와 은우, 은관자의 한자 의미를 생각하며 묘사하였다면 주전자 형태를 은관자로, 속이 깊은 은반형태를 은우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은우와 은관자의 혼동은 조선후기에도 지속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차도의 절반이상이 명칭을 뒤바꿔 쓰거나 형태를 다르게 그렸다는 점이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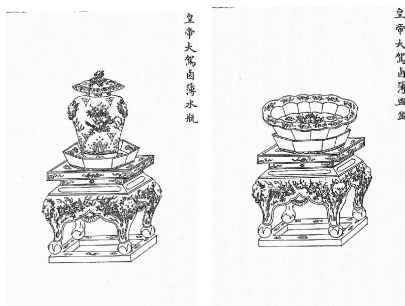
의례를 제작할 시 당대의 의례서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선대(先代)의 의례의 반차도를 참고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발인의 반차도를 보건대 방상씨(方相氏)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다.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발인 때에는 중 5, 6명이 받들어 가지고 걸어가면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먼저 이끌고 갔는데, 지금 이를 모방하여 하려고 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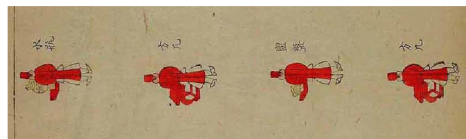
16) 『成宗實錄』 권2, 1년 1월 22일 辛丑 “傳曰：今見發引班次圖，有方相氏。此等事，古亦有之。世祖大王發引時，僧人五六，奉持行步，彌陀先引而行，今欲倣此爲之。”

위 기록은 성종 대의 발인반차도에는 방상씨가 있으나 세조 대의 발인반차도에는 아미타불이 방상씨를 이끄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모방한다는 것이다. 즉, 성종 대 기준으로 현재와 선대의 발인반차도와 비교하여 보고 선대의 흥의장을 참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조선초기의 은우와 은관자의 개념 혼동으로 인하여 반차도에 명칭을 바꾸어 표기 해놓았다면 선대의 반차도를 참고하여 후대의 반차도에 잘못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의례 제작의 관행 상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은우와 은관자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묘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은우는 한자 의미에 맞게 바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발이나 뚜껑이 있는 바리, 뚜껑이 없는 바리의 몸체의 형태로도 묘사 되고 있다. 또한 은관자도 한자의 의미에 따라 주구가 있는 주전자의 형태이거나 물을 길는 기능성을 반영하여 손잡이가 달린 물동이의 형태로 그려진다. 1800년대 들어서는 은우와 은관자를 묘사하는 데 있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은우와 은관자를 바리의 형태로 같이 그려 넣기만 하거나 은관자에 주구와 손잡이를 달아 구분한 것이다. 은우와 은관자를 같은 바리의 도식으로 묘사한 것은 개념의 충돌과 더불어 선대의 반차도에서 기준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바리 형태임에도 은관자에는 주구와 손잡이를 달아 구분하고자한 것은 명칭의 한자 의미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황조예기도식』 황제대가노부 수병(좌), 관분(우)



<그림 4>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수병·관분 일부분

1897년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고, 왕후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이 시기에 명성황후의 발인을 진행하기 위해 황후의 예를 갖춘 의물도 새로 정비되었다. 명성황후 발인반차도에는 황색으로 제작된 새로운 의물 중 수병(水瓶)과 관분(盥盆)이 등장한다. 이는 청나라의 건륭 24년에 완성된 『황조예기도식(皇朝禮器圖式)』에 기록된 의물과 일치한다. 규장각소장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의 반차도를 살펴보면, 화면 구성상 앞부분의 의물 구성에 관분이 묘사되어있으며 양 옆으로 대수병(大水瓶)과 소수병(小水瓶)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반차도 후반 부분에는 백택기 뒤로 은우와 은관자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금·은등자가 좌우로 위치해 있다. 이는 관분과 수병을 배치함에 따라 청나라의 예법을 받아들인 이는 동시에 은우와 은관자가 여전히 행렬에 포함 되어 조선의 예법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화사상을 탈피하고, 황제국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고자하였던 당시 고종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에서는 수병과 관분이 중앙에 위치하였고, 은우와 은관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5. 땃음말

은우는 왕실의 행사나 의례 등 행차 시 위엄을 보이기 위한 의장이었다. 은우는 은관자와 함께 의물의 행렬 중 중앙에 위치하여 가장 돋보였다. 2장에서는 조선시대 은우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은우는 『세종실록』 「오례」에 그림과 함께 은으로 만들었으며 물을 길는 그릇으로 기록되었다. 은우의 특징은 왕과 왕비의 의장이었으며, 의례의 격식에 맞는 자색의복을 착용한 사람이 들었고, 매 행사마다 새로이 만들지 않았다. 3장에서는 의궤의 기록을 통해 은우의 제작과 장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의궤에 은우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재료를 보면 『세종실록』 「오례」의 은으로 만들었다는 기록과는 달랐다. 의궤의 기록을 통해 은우는 구리 몸체를 만들고, 주석으로 도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장과 부랍장이 협업을 통해 은우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장에서는 규장각 소장 의궤의 반차도에 기록된 은우와 은관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은관자는 은우와 함께 등장하는 의물로 반차도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한편 조선전기 의례서의 도설과는 다르게 조선후기 남아 있는 의궤의 반차도에서 은우와 은관자의 그림과 명칭이 바뀌어 있거나 다른 형태로 그려졌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의 의장 전통과 중국 예서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에서 찾았다. 조선전기 의례서의 도설과 명칭의 한자 의미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반차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화원들은 기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차도를 제작 시 선대의 반차도를 참고하여 그리기도 하였다. 은우와 은관자의 도설과 명칭의 한자 의미가 충돌됨에 따라 명칭을 바꿔 표기했을 시 선대의 반차도를 참고하여 후대에서도 바꾸어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궤 제작의 관행상 필사 과정 시 오류가 반복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은우라는 의장을 중심으로 제작과 장인, 반차도의 묘사된 은우와 은관자를 통해 시기별 전례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은우의 문헌사적 고찰은 의장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규장각 소장 의궤 중심으로 살펴보아 한정적이며, 어람용과 분상용을 구분하여 비교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의장, 은우, 반차도, 의궤, 장인

투고일(2018. 3. 18), 심사시작일(2018. 4. 11), 심사완료일(2018. 4. 23)

〈Abstract〉

Historical Approach to the Eun-u of ceremonial objects in the Joseon Dynasty

Kim Ji Hyeon *

Ceremonial objects is the word collectively calling article and system to show royal dignity. Eun-u was ceremonial objects to show royal dignity during the procession in royal ceremonies and rites. Eun-u stood out the most in the middle of a procession of ritual material with Eungwanja. The interesting thing is most of Banchado is getting confused name of Eun-u and Eungwanja and describing them quite differently. This study began with a question of Eungwanja appearing with Eun-u while examining ritual material described in the Banchado.

Chapter 2 is examining use of Eun-u in Joseon dynasty. Eun-u was made of silver and bowl drawing water recorded in Sejongsilrok Orye. The material was made of silver and it explaining the functionality to draw water. The characteristics of Eun-u are as follows. First, Eun-u was ceremonial objects of the king and queen. Second, The person wearing the purple clothes and headscarf stood on ceremony held Eun-u. Third, Eun-u was not made afresh at every ceremony. Chapter 3 is examining making and craftsman of Eun-u on the record of Uigwe. The material of Eun-u recorded in Uigwe is Dongcheol and Yulab. It's different from the record that it was made of silver in Sejongsilrok Orye. Dongcheol means the copper and Yulab is the name calling the tin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By comparison the quantity consumed, the copper is far more than the tin. It also appears a lot of records that said add colors and stick the tin where it fallen off in Eun-u. In other word, the body of Eun-u was made of the copper and it plated with tin. The craftsman who made Eun-u is presumed the Dongjang and Bulabjang.

*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onvergence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hapter 4 is considering Eun-u and Eungwanja recorded in Banchado of Uigwe that possessed by Gyujanggak. According to Sejongsilrok Orye, Eungwanja recorded ritual material that appears with Eun-u, and it also the same in Banchado. Meanwhile, the name of Eun-u and Eungwanja was written reversed or they were sketched in different shape in Banchado in late Joseon dynasty. It is different from the explanatory diagram of ritual books in early Joseon dynasty. The reason was the people recorded Uigwe confused in the process of referring to tradition of ceremonial objects in Goryeo Dynasty and Chinese ritual books. In this process, a collision occurred between the explanatory diagram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Accordingly, the painters of Banchado couldn't find the suitable guidelines. Besides, they even drew Banchado referring to ancestors. If ancestors wrote the name of Eun-u and Eungwanja wrongly, it has many possibility that descendants followed it. It also repeated mistake during transcribing in practices of making Uigwe. Since then, they were substituted for Subyeong and Gwanbun by the rules of decorum of Qing dynasty in the Korean Empire.

This study grasps the function of ceremonial objects, and making and craftsman of Eun-u. Further more, it tried to analyze the name and shape of it recorded in Banchado. In the absence of any relics, a historical survey of literature of Eun-u is meaningful because it provides the clue of studying the ceremonial objects. However, it is limited to Uigwe possessed by Gyujanggak, and it couldn't compare actual object because of absence of any relics. It remains further subject of a research.

Key Words : ceremonial objects, Eun-u, Banchado, Uigwe, master craftsman